

Original Article / 원저

## 안이비인후과목, 피부외과목의 전공만족 및 전공 몰입경험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김철윤 · 김남권 · 권 강 · 서형식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Scale in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Chul-Yun Kim · Nam-Kwen Kim · Kang Kwon · Hyung-Sik Seo*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the Learning Satisfaction (LS) and Learning Flow Scale (LFS) for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and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 LF and LFS were administered to 44 students and 20 resident physicians . We examined the test-retest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and performed factor analysis.

- Result** : 1. Test-retest reliability were reliable on LS and LFS for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2. Test-retest reliability were unreliable comparatively on LS and LFS for Korean Medical Dermatology.  
3. internal consistency were all reliable in LS and LFS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4. factor analysis were reliable only LS of Korean Medical Dermatology.

**Conclusions** : LS and LFS has reliability to measure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f Korean Medical students. But there is no evidence about validity of LS and LFS for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Key words** : Reliability; Validity;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Flow Scale

© 2015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 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점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참여식 수업방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특히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과거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머물러 있다.

교육법에 관한 연구는 안이비인후과, 피부외과목에 대한 새로운 교수법<sup>1)</sup>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교육방식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뤄진 바가 없었다. 학생 주도의 참여식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가 안이비인후과, 피부외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몰입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전공몰입도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을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sup>2)</sup>이다. 전공몰입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고 학습하고 있는 전공분야에 대한 활동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 느끼는 의식상태를 말하며, 일체감과 애착을 가지고 전공수업에 몰두하는 정서적인 상태<sup>3)</sup>이다.

전공만족도, 전공몰입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개발되어 있으나 주로 '전공'에 대해 대부분 적용되었으며 '과목'에 적용된 예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한의학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척도는 개발되어 사용된 적이 없었다. 먼저 안이비인후과와 피부외과 과목에도 전공만족도, 전공몰입 척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와 몰입 정도를 측정하여야만 관련된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여 만족도와 몰입정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방법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 II. 방 법

### 1. 대상

본 연구는 2014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44명과 안이비인후피부외과 학회에 참여한 수련의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동일한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38명을 재조사하여 검사-재조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황<sup>4)</sup>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안이비인후과, 피부외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부'라는 용어를 안이비인후과, 피부외과로 수정하였고 하위요인 중 교과만족에 해당하는 문항 2개, 관계만족에 해당하는 문항 2개를 삭제하여 18개 문항으로 하였다.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배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몰입도

본 연구에서는 Jackson과 Marsh<sup>5)</sup>가 개발한 몰입상태 척도를 이<sup>6)</sup>가 번안하였고 김<sup>7)</sup>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문항 중 '전

Corresponding Author : Hyung-sik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0, Geumo-ro, Mulgeum-eup,  
Yo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Tel : 055-360-8690, E-mail : aran99@pusan.ac.kr)

• Recieved 2015/4/4 • Revised 2015/4/29 • Accepted 2015/5/6

공수업'이라는 용어를 '안이비인후과 수업', '피부외과 수업'으로 수정하였으며 삭제한 문항없이 34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배정하였다.

### 3. 자료의 수집

안이비인후과와 피부외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몰입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4년 10월 26일 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에 참석한 수련의 2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12월 15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를 위해 2015년 3월 23일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일한 학생 44명을 대상

Table 1. The Subfactor of Learning Satisfaction

Sub Factor	Item Number	Quantity
CS	2,4,5	3
RS	7	1
GS	1,3,6,8,9	5
CS	10,11,12,13,14,15	6
SC	16,17,18	3
Total		18

CS : Curricular Satisfaction    RS : Relationship Satisfaction  
 GS : General Satisfaction    CO : Cognitional Satisfaction  
 SC : Survey Course

Table 2. The Subfactor of Learning Flow Scale

Sub Factor	Item Number	Quantity
EF	3,4,6,10,11,12,19,28,29,32	10
CBF	1,2,5,7,8,13,24,25,31	9
ICF	9,16,18,20,27,30,33,34	8
TCF	14,15,17,21,22,23,26	7
Total		34

EF : Emotional Factor  
 CBF : Controllability & Behavioral Factors  
 ICF : Intellectual Curiosity Factor  
 TCF : Time Change Factor

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익명의 아이디와 이름을 대조하여 2번 모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3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였다.

### 4. 자료의 분석

#### 1) 검사 - 재검사 신뢰도

2014년 12월 한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와 3월 23일 시행된 재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검사, 재검사를 모두 시행한 38명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검사간의 평균, 분산,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2) 내적일치도

2014년에 실시된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학회에 참여한 안이비인후피부과전공 수련의를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보기 위해 황<sup>4)</sup>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공만족도척도의 하위요인(Table 1), 전공몰입경험의 하위요인(Table 2)에 근거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 3) 탐색적 요인분석

2014년에 실시된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학회에 참여한 안이비인후피부과전공 수련의를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초기값을 추출하고 varimax 방식으로 요인구조를 직각 회전하여 산출된 성분행렬을 분석하였다.

## III. 결 과

### 1. 검사 - 재검사 신뢰도

#### 1) 전공만족도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만족 척도는 평균이 3.3202와 3.3216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48594와 0.49609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간 Pearson 상관계수가

0.746(P <0.01)이었다. 피부외과의 전공만족도는 평균은 각각 3.6579, 3.6871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49159, 0.56809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520(P <0.01)이었다(Table 3).

## 2) 전공몰입도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몰입척도는 평균이 3.3437와 3.2686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48125와 0.50339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간 Pearson 상관계수가 0.754(P <0.01)였다. 피부외과의 전공 몰입척도는 평균이 각각 3.5441, 3.2686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51571, 0.50339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507(P <0.01)이었다(Table 3).

## 2. 내적일치도

### 1) 전공만족 척도

전공만족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총 5개 하위요인 중 관계만족에 대한 문항이 1문항이라 내적일치도를 확인할수 없어 교과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의 4개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안이비인후과 전공만족 척도의 각 하위요인 당 내적 일치도는 교과만족에서 0.489, 일반만족의 경우 0.856, 인식만족은 0.876, 진로조사 요인은 0.856으로 나타났다. 피부외과의 전공만족 척도는 교과만족이 0.816, 일반만족 0.886, 인식만족 0.937, 진로조사 0.754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Test-Retest Reliability,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Flow Sca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est-Retest Reliability
OOLS	Test	3.3202	0.48594	0.746(p <0.01)
	Re-test	3.3216	0.49609	
DLS	Test	3.6579	0.49159	0.520(p <0.01)
	Re-test	3.6871	0.56809	
OOLFS	Test	3.3437	0.48125	0.754(p <0.01)
	Re-test	3.2686	0.50339	
DLFS	Test	3.5441	0.51571	0.507(p <0.01)
	Re-test	3.2686	0.50339	

OO :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LFS : Learning Flow Scale

D : Dermatology

LS : Learning Satisfaction

Table 4. The Internal Consistency of Learning Satisfaction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Subfactor	Cronbach's $\alpha$	SubFactor	Cronbach's $\alpha$
CS	.489	CS	.816
GS	.856	GS	.886
CS	.876	CS	.937
SC	.856	SC	.754

CS : Curricular Satisfaction  
CO : Cognitional Satisfaction

RS : Relationship Satisfaction  
SC : Survey Course

GS : General Satisfaction

Table 5. The Internal Consistency of Learning Flow Scale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Subfactor	Cronbach's $\alpha$	SubFactor	Cronbach's $\alpha$
EF	.930	EF	.945
CBF	.878	CBF	.897
ICF	.807	ICF	.883
TCF	.751	TCF	.826

EF : Emotional Factor    CBF : Controllability & Behavioral Factors    ICF : Intellectual Curiosity Factor  
 TCF : Time Change Factor

Table 6. The Factor Analysis of Learning Satisfaction for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Factor			
	1	2	3	4
Q11	.786			
Q12	.839			
Q13	.817			
Q14	.702			
Q15	.720			
Q16	.754			
Q17	.667			
Q18	.656			
Q1		.713		
Q2		.677		
Q3		.767		
Q6		.724		
Q8		.689		
Q9		.817		
Q4			.733	
Q7			.828	
Q5				-.618
Q10				.696
Eigen value	4.985	4.071	2.121	1.383
Total(%)	27.697	22.614	11.785	7.685

KMO<sub>0.1</sub> = .828

Bartlett  $\chi^2=668.637$  df=153 p<0.01

Table 7. The Factor Analysis of Learning Satisfaction for Korean Medical Dermatology

	Factor				
	1	2	3	4	5
Q9	.710				
Q10	.829				
Q11	.667				
Q12	.848				
Q13	.638				
Q15	.768				
Q16	.702				
Q14		.741			
Q17		.855			
Q18		.865			
Q1			.627		
Q3			.778		
Q6			.528		
Q8			.538		
Q2				.698	
Q4				.833	
Q5				.806	
Q7					.899
Eigen value	4.86	3.03	2.24	2.10	1.41
Total (%)	26.977	16.812	12.465	11.656	7.847

KMO<sub>0.1</sub> = .829

Bartlett  $\chi^2=711.787$  df=153 p<0.01

2) 전공몰입 척도

전공몰입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몰입은 각 하위요인 별로 정서적 요인의 경우 0.930, 통제감 및 행동적 요인의 경우 0.878, 지적호기심 요인은 0.807, 시간흐름의 변화요인은 0.751로 나타났다. 피부외과의 경우 정서적 요인은 0.945, 통제감 및 행동적 요인 0.897, 지적호기심요인 0.883, 시간흐름의 변화요인 0.826으로 나타났다(Table 5).

3. 탐색적 요인분석

1) 전공만족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고유치를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안이비인후과의 경우 요인의 수는 4개로 나타났으며 요인 1에는 11, 12, 13, 14, 15, 16, 17, 18번 문항이 해당되었고 요인 2에는 1, 2, 3, 6, 8, 9번 문항, 요인 3에는 4,7번 문항, 요인 4에는 5, 10번 문항이 해당되어 원 하위요인들과 일치하지 않았다(Table 6). 피부외과의 경우는 요인의 수는 5개로 나타났으며 근거가 되었던 하위요인과 문항이 대부분 일치하여 요인 1은 '인식만족' 요인 2는 '진료조사', 요인3은 '일반만족' 요인 4는 '교과만족' 요인 5는 '관계만족'의 하위요인임이 나타났다(Table 7).

2) 전공몰입 척도

안이비인후과의 경우 요인의 고유치를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스크리 검정 시 요인의 수가 5개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의 수를 5개로 고정된 뒤 varimax rotation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안이비인후과의 경우 요인 1은 1,2, 3, 4, 6, 7, 8, 9, 10, 11, 12, 19번 문항에 해당되었고 요인 2는 5, 13, 14, 20, 24, 25, 28, 30, 34번 문항, 요인 3은 21, 22, 26, 27, 29번 문항, 요인 4는 15, 16, 17, 31, 32, 33번 문항, 요인 5는 18, 23번 문항에 해당되어 근거로 했던 하위요인과 일치하지 않

았다(Table 8).

Table 8. The Factor Analysis of Learning Flow Scale for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Factor				
	1	2	3	4	5
Q1	.617				
Q2	.660				
Q3	.768				
Q4	.535				
Q6	.629				
Q7	.766				
Q8	.737				
Q9	.618				
Q10	.605				
Q11	.600				
Q12	.432				
Q19	.433				
Q5		.629			
Q13		.604			
Q14		.524			
Q20		.699			
Q24		.792			
Q25		.588			
Q28		.605			
Q30		.615			
Q34		.513			
Q21			.579		
Q22			.713		
Q26			.783		
Q27			.467		
Q29			.601		
Q15				.687	
Q16				.633	
Q17				.515	
Q31				.722	
Q32				.584	
Q33				.546	
Q18					.766
Q23					.679
Eigen value	6.486	5.516	4.153	3.824	2.979
Total (%)	19.08	16.22	12.22	11.25	8.76

KMO값 = .815

Bartlett  $\chi^2=1731.232$  df=561 p<0.01

피부외과의 경우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1은 1, 2, 5, 6, 7, 8, 9, 10, 11, 17, 19, 27, 33, 34 문항에 해당되었고 요인 2는 3, 4, 28, 29, 30, 31, 32문항, 요인 3은 12, 13, 18, 21, 22, 23, 26문항, 요인 4는 15, 16, 17, 31, 32, 33문항, 요인 5는 18, 23문항이 해당되어 근거로 했던 하위요인과 일치하지 않았다(Table 9).

#### IV. 고 찰

이 연구는 예비연구를 통한 설문개발 이전에 기존의 개발되어 있는 전공만족도와 전공몰입도가 한 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안이비인후과, 피부외과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몰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전공만족이란 학과 만족에 대한 개념을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sup>8)</sup>.

전공만족에 대한 평가는 Veenhoven<sup>9)</sup>이 정의한 인생만족의 두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며 하나는 감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인지적 측면으로 전자는 자신이 소속한 학과에 대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운 정도이고 후자는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전공에 대한 만족요인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sup>2)</sup>는 학과만족이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요인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대부분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별, 학업성적, 적성, 지능, 재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계층배경, 교육제도, 산업구조 등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 영역을 선

Table 9. The Factor Analysis of Learning Flow Scale for Korean Medical Dermatology

	Factor				
	1	2	3	4	5
Q1	.571				
Q2	.710				
Q5	.628				
Q6	.618				
Q7	.649				
Q8	.692				
Q9	.717				
Q10	.823				
Q11	.591				
Q17	.511				
Q19	.701				
Q27	.543				
Q33	.494				
Q34	.516				
Q3		.764			
Q4		.685			
Q28		.652			
Q29		.584			
Q30		.548			
Q31		.721			
Q32		.581			
Q12			.588		
Q13			.525		
Q18			.671		
Q21			.513		
Q22			.771		
Q23			.755		
Q26			.837		
Q14				.626	
Q20				.663	
Q24				.634	
Q15					.554
Q16					.797
Q25					.607
Eigen value	7.926	5.538	4.865	3.143	3.141
Total (%)	23.31	16.29	14.31	9.24	9.24

KMO = .889

Bartlett  $\chi^2=1979.120$  df=561 p<0.01

택할 시에는 개인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 요인의 중점을 두고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목에 대해 높은 만족도와 몰입도를 나타낼 것이지만 외부적 요인에 중점을 둔 경우에는 비록 자신이 전공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만족도와 몰입도가 낮을 수 있다. 전공만족 연구들은 그동안 체육, 무용, 미용, 조리 등의 실습을 위주로 하는 특정 전공의 전공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시행되어 왔지만 의학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전공몰입이란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화가들, 락 음악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입하여 춤추는 댄서들,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 바둑에 몰두해 있는 기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몰입상태를 말하며 Csikszentmihalyi에 의해 처음 제기된 개념이다. 의식이나 지각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고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에만 반응하게 되며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하게 된다<sup>10,11</sup>. 몰입이란 완전히 어떤 것에 몰두해 있을 때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고도의 주의 집중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타인, 집단 또는 조직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즉, 몰입에 대상이 타인, 조직자체에 대한 몰입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몰입은 한의학에 대한 몰입, 자신이 다니는 한의학과에 대한 몰입, 더 나아가서는 한가지 과목에 대한 몰입까지 세분화할 수 있다. 그중 전공몰입이란 학생이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에 대하여,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하여 몰입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애착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한의학과 내의 한 전공과목에 대하여서도 몰입에 대한 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앞 선 연구들을 근거로 하였을 때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전공몰입 경험을 하게 되고 몰입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몰입의 측정은 크게 경험표집방법, 인터뷰, 이야기설문 방법, 설문지법의 4가지가 있다. 이 중 설문지법은 지나간 몰입 사건에 대해 회상을 하며 응답하

는 방법이므로 경험표집방법보다 응답을 할 때 왜곡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비교적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up>12</sup>. 설문지법은 Jackson과 Marsh가 개발한 몰입상태 척도(Flow State Scale)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지며 Mundell<sup>13</sup>에 의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의 측정도구들은 몰입상태척도를 각각의 연구 상황에 맞도록 변형시킨 척도들이다.

각각의 변형된 척도를 사용하여 크게 세 분류의 선행연구들이 시행되었다<sup>14</sup>. 첫 번째, 예술, 여가, 체육 활동을 통한 몰입경험등의 주제로 몰입경험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둘째, 몰입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 몰입연구로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직무에 대한 몰입에 대한 연구들이 그 예이다. 셋째, 특정 분야를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몰입연구이다. 이 때의 몰입은 처음부터 그 대상과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집중적인 몰입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몰입의 측정의 세 부류 중 세 번째 분류에 대한 연구로 안이비인후학, 피부외과학 전공과목의 한정지어 그 몰입경험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검사-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만족도와 전공몰입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각각 0.746과 0.754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피부외과의 경우 각각 0.520과 0.507로 낮게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검사 간 기간이 너무 길 경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재검사시 결과가 변화할 수 있고 너무 짧을 경우 신뢰도가 높게 특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통 4-8주 간격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소 긴 12주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였다. 12주의 기간동안 학생들의 방학이 있어 전공만족도의 변화를 줄 만한 요인은 없었으나 안이비인후과에 비해 피부외과의 몰입도의 평균이 약 3점가량 낮아진 것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떤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내적일치도의 경우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만족 하위



요인 중 교과만족에서만 Cronbach's  $\alpha$ 가 0.489로 낮았지만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0.754~0.937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안이비인후과와 피부외과의 전공만족, 전공몰입척도에 대한 타당도 분석에서는 피부외과의 전공만족 척도에서만 기존의 설정된 하위요인과 유사한 요인분석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만족, 전공몰입, 피부외과의 전공몰입 척도는 기존의 설정된 하위요인들과 일치하지 않는 요인분석결과가 나와 타당도는 검증되지 않았다.

## V. 결 론

전공만족, 전공몰입을 측정하는 기존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척도를 이용하여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안이비인후피부외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만족척도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만족척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4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내적 일치도는 교과만족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요인에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척도의 타당도는 낮았다.

### 2.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몰입척도

안이비인후과의 전공몰입척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5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내적 일치도에서도 교과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4가지 요인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척도의 타당도는 낮았다.

### 3. 피부외과의 전공만족척도

피부외과의 전공만족척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520으로 신뢰도가 높지 않았지만 내적일치도에서는 교과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4가

지 요인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척도의 타당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 4. 피부외과의 전공몰입척도

피부외과의 전공몰입척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7로 신뢰도가 높지 않았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척도의 타당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하지만 내적 일치도에서는 교과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4가지 요인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기존의 전공만족, 전공몰입척도를 안이비인후과, 피부외과의 적용시 신뢰도는 높은 편이지만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으므로 전공만족, 전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References

1. Lim KS, Lee JC, Park YG. New Paradigm Teaching Method on the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Clas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0;23(1):270-81.
2.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1999.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3. Nam SH. Major Commitment and Work Values. J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005;19(1):223-42.
4. Hwang JY.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Job Search Behavior. Master's Thesis.

2011. University of DongA.
5. Jackson SA, Marsh H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a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96;18:17-35
6. Lee TJ. The Effect of Flow Experienc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2003.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ngik.
7. Kim HJ.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2007.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8. Kim AY, Tack HY, Lee CH.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J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010;24(1):39-59.
9. Veenhoven R.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1993. Rotterdam: Erasmus University Press.
10. Csikszentmihalyi M. Beyond Boredom and Anxiety: The experience of play in work in work and games. 1975.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1. Csikszentmihalyi M.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1990. New York:Harper and Row.
12. Engeser S, Reinberg F. Flow, performance and moderators of challenge-skill balance. 2008. *Motivation and Emotion*, 32, 158-72.
13. Mundell CE. The role of perceived skill, perceived challenge, and flow in the experiences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200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Virginia.
14. Son JH. A study on the The Educational Values of Flow Experience. Master's Thesis, 2009. Ewha Womans University.

〈별첨〉

1. 전공만족도 설문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OOO과의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OOO의 교육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OOO 전공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OOO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OOO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OOO에서 배우는 내용은 나와 잘 맞다	①	②	③	④	⑤
7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OOO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OOO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OOO는 인기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부모님은 내가 OOO를 전공할 경우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OOO를 전공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OOO에 대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OOO는 내가 전공할 만한 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많은 사람들이 OOO를 전공하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졸업 후 진로에 OOO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졸업 후 OOO와 관련된 수련이나 대학원을 갈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졸업 후 OOO와 관련된 취업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몰입경험 척도 설문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OOO에서 내가 숙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OOO 수업이 끝난 후에는 몰랐던 관련지식을 알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과 수업에 비해 OOO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을 통해 OOO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5	OOO 수업시간에 나는 집중력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6	OOO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의 내용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7	OOO수업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OOO 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OOO수업에서 과제를 잘 수행하려는 이유는, 단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제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많아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OOO수업에서 배우는 지식을 내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참 뿌듯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000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000수업시간에 다른 수업 때보다 더 의욕이 생기고 활기가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000 수업시간에 완전히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000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000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과제를 하면서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000 수업과정에서 이전에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렵고 힘들겠다는 느낌보다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7	000 수업을 통해 나는 000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에게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000 수업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000 수업이 끝난 후 수업에서 다룬 지식을 알게 된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000에서 내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 교수님 또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000 수업의 내용은 내가 이해할만한 수준이지만,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000 수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른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000수업시간에는 수업 이외의 상황에 대한 걱정, 근심을 잊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000 수업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000수업을 통해 나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26	1~2시간 동안의 수업이 마치 30~40분처럼 느껴질 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000 수업에 충실한 것은 교수님께 좋은 점수를 받거나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공수업 과정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그 어떤 때보다 000 수업을 들을 때 많은 관심을 쏟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000수업에서 좋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000 수업에서 성취감을 즐겼고 그 성취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000 수업 후 000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다	①	②	③	④	⑤
32	000수업을 열심히 들을수록 더 깊은 매력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33	000 수업 이후에도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알고 싶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000 수업 중 나의 의견이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